

치 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꼭 있어야 할 것과 있어서는 안되지만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미혹한 중생이 있어 여래가 사바세계에 오셨고, 고통이 있어 치유가 생겨난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까.

오늘로 23년을 이어오는 불교인권위원회와 열아홉 번째 불교인권상을 수상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사회가 무지와 미혹에 빠져있으며 소외되고 아픈 이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불교인권상은 1992년 박종철열사의 부친이신 박정기님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반전평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일본산 묘법사가 수상하였습니다. 역대 인권상 수상자와 단체들의 면면을 통해 그간 우리사회의 쟁점과 갈등들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올바르게 회복하려는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인권상을 수상하시는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는 8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고령의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위치에서 본다면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생존권과 후손들의 행복이 위협에 처해있다는 커다란 염려

인 것입니다.

우리말에 우리는 ‘나’를 나타내기도 하고, 나와 인연 있는 ‘전부’를 말하기도 합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아버지 우리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혼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사회는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우리아버지 우리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존경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나라가 부흥하려면 노약자를 보호하고,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갈등을 대화와 화합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어르신들의 지혜를 통해 인간이 인간다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성과 도덕성을 올곧게 지켜나간다면 제아무리 복잡한 갈등이라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나의 희망이자 발원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뜻 깊은 날을 맞이하여 수많은 갈등과 이로 인한 고통이 우리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지혜를 꺼내어 화합으로 치유되길 바라며, 이러한 수고가 후손들의 행복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불기2557년 11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